

문경 김용사 대성암 금당 문화재 지정

문경 김용사 대성암 금당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문경시는 최근 "19세기 후반 중창된 김용사 대성암 금당은 본채와 승려 거주 공간인 요사채의 상호 구성 등 문화재적 가치가 돋보여 문화재자료 제 57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성암 금당은 건물 1동의 면적이 397㎡로 경북 북부지역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크다. **손병현 대구지사장**

동문화 · 템플스테이 대불련 원광대 불교학생회



원광대 불교학생회 동문화가 익산 송림사에서 예불을 봉행하고 있다.

대불련 원광대 불교학생회 불일사 동문화(회장 차봉기, 경주 동산한의원장)는 6월 26~27일 익산 송림사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원광대 대불련 재학생 및 동문 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선, 다도, 108배, 발우공양, 돌레길 탐방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동문한마당 행사 및 불일사동문화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원광대 불일사 동문화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정안섭(55세, 평민종합식품 지사장), 부회장 정인택 호남제주주부장 · 고희대 서울경기강원지부장 · 윤상희 충청지부장 · 황대룡 경상지부장, 사무총장 최종민(한서대 교수), 사무국장 김원우(우리불교 편집국장)를 각각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래하는 스님들의 열정적인 무대

불교NGO센터 건립 추진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 음악회

불교NGO센터 건립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가 빛고을의 여름 밤을 감쌌다.

4대강 반대 운동이 불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입)는 7월 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생명 평화를 알리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광주 시민과 불자들이 행사에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음악회는 종성 스님의 법고시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부부나합창단과 로터스합창단의 '새로 나게 하소서', '침산은 나를 보고' 등의 혼성 화음곡연으로 분위기를 고조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성 스님, 심진 스님, 지연 스님, 서운대 음악대학 성악과 출신 시명 스님 등은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객석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 메운 신도들은 불편한 것도 다 잊고 스님의 공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범성 스님은 마지막 노래선으로 무대에 올랐다. '꽃등 들어 님 오



불교 NGO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3000여 광주 시민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시명' 등 3곡을 선사한 스님의 음성 공양에 신도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관음무용단의 '홀로 핀 연꽃', '마음의 혼불이 꽤' 등 관음춤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과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아미타불 나 의 남'이 대극장에 울려 퍼졌다.

법입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

리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대안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주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담보해갈 '불교NGO센터' 건립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행사를 통해 생명평화 사상을 알리고, 각 사찰과 신도들의 자발적 성금이 모아

져 불교 대중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담 스님(선암사 주지) 등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호남지역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선암사 등 7개 본사 및 광주 불교사암연합회 등 지역 사찰의 적극 후원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구자의 역할 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봉준엽 신도회장 취임



봉준엽 신도회장 취임식 모습

“백양사가 한국불교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공)는 6월 26일 대웅전에서 봉준엽 신도회장(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방장 수산 스님, 시공 스님을 비롯해 김양수 장성군수 당선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회장단 임명장

수여, 격려사, 취임사, 전도선언문 낭독, 미래의 백양사를 생각하는 결의문 낭독, 입방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의 새 출발을 기념해 임원들이 전도선언문과 '미래의 백양사를 생각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취임하는 마음이 깊어 원하는 일 남을 없고, 세상 벗어나 곧 바로 대우차(大牛車)에 오른다. 성문(聲聞)은 홀로 진흙 속의 말에서 벗어나지만, 보살은 괴로운 바다의 고기까지 구제한다. 기꺼이 버린 사람 상락(常樂)의 언덕에 오르고, 원수진 사람 친한 사람 묘한 진여(眞如)를 깨닫는다. 그 공덕 어디

서 오는가 고요히 생각하면, 텅 비고 또 비어 저 태허(太虛)밖이네' 라고 개설했다.

봉준엽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도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10년 후의 백양사, 100년 후의 미래상을 단계·연차별로 계획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봉준엽 회장은 83년 전남 영광, 광양, 구례군수와 전남도의 여러 국장을 역임하고 대주건설 사장, 송촌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신사리 친견 나한전 낙성 법회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6월 27일 군산지역스님과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나한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성흥사 나한전은 연못 중앙에 부도형 진신사리탑을 조성하고 연못 주위로 아미타불을 비롯한 불보살과 16나한 등 30여 기를 석재로 조성했다.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은 "향후 수련센터, 문화센터, 명상센터, 복지센터 등을 건립해 복지와 전법의 도량으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흥사에 봉안하게 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와지리기 사원 스리랑카 담파사와 승정으로부터 쓰나미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기증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회갑에 나눔의 잔치를 연 김은희 불자

나눔으로 하나된 특별한 회갑연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회갑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준 주인공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생명나눔) 후원회장과 원효사 자리이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은희 불자(불명 진여성, 무등산 '절로 가는 길' 대표·사진)이다.

김은희 불자는 6월 23일 자신의 회갑잔치를 대신해 독거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도리어 더 힘든 독거어르신에게 수연을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모아준 회갑잔치비용을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는 자비신행회(회장 이화영)에 200만원, 거례화나되기운동본부에 복병어린이 공우유 지원금으로 써달라며 100만원, 병고에 지친 환자들에게 차를 봉사하는 조선대 차봉사팀(팀장 문근자)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갑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 이번 행사는 30여 년전 김은희 불자가 아픈 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롯됐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갈 수 있다면, 만일 이 아이가 자라서 내가 60이 되는 해에,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이 아이처럼 아픈 아이들에게 회갑을 하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에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안 자식들이 효심을 더했고 아주 특별한 자비나눔의 수연이 펼쳐지게 된 것.

김은희 보살은 이미 광주에서

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봉사자이다. 광주생명나눔의 후원회장을 맡아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과 후원자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원효사 자리이다 봉사단 단장으로 광주공원과 산수시장 등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불교계의 대표적 봉사자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김은희 보살은 2009년 여성불교계 발원이 선정된 전국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연은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로 시작했다. 가수 주권기씨 등의 축하공연과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전달했다. 점심시간에는 어른들에게 전복 삼계탕과 찰밥, 산나물, 떡 등으로 음식잔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희 불자의 가족들과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 흥룡사 주지 상운 스님과 봉사자 50여 명도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8년 전 현지 스님을 도우며 시작된 광주공원 무료급식은 이제 인근 어른들이 찾아오는 '맛있는 밥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리이다 봉사단을 통해 고아원, 영아원의 봉사와 노인시설의 목욕봉사 활동과 광주생명나눔을 통한 소아암백혈병 후원사업은 김은희 불자의 새로운 사명이 됐다. 새로운 길을 맞이하는 김은희 불자에게 광주불교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 많은 불자들이, 더 많은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김은희 불자의 바람처럼, 광주불교를 나눔의 잔치무대로 만드는 원력보살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자들은 이를 '정도'라 말할 것 같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은희 불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도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영가등

왕생극락전등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일(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등 주문 받습니다.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중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1. 내열 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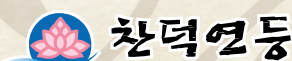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